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 분석*

The Study on Types of Couples' Time Use

오하이오주립대 소비자학과

방문연구원 한 지 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 수 이 연 속

Dept. of Consumer Science, Ohio State University

Visiting Scholar : Han, JiSu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 : Lee, YonSuk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various types of couples' time use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subject of the study consisted of 96 employed wives and their husbands and 215 unemployed wives and their husbands living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luster analysis using SAS 8.2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time use of wives and their husbands both on one weekday and one holiday was classified as personal time, paid work time, housework time, and free time. These 4 categories of time were basic elements to classify the types of couples' time use in the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four types of time use of couples were yielded. These were called as 'personal time oriented type', 'paid work time oriented type', 'housework time oriented

* 본 연구는 한지수(2004)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한지수 (virtus71@freechal.com)

type' and 'free time oriented type'.

Key Words : 부부의 시간사용 유형(types of couples' time use), 평일 시간사용 유형(types of time use on weekdays), 휴일 시간사용 유형(types of time use on holidays)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생활을 시간으로 파악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기간은 하루 24시간이다. 이러한 한정된 시간은 어떤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증가시키면 다른 활동 시간을 감소시켜야 하는 제로-섬(zero-sum)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한 영역의 시간 변화는 다른 영역의 시간 변화를 초래하여 각 범주 간 시간의 상호 교환(trade off) 작용이 일어난다(Robinson & Godbey, 1999). 시간의 상호작용은 한 개인의 생활영역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이라는 공동 사회 안에서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부부사이에서도 시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형성한 개인들의 시간배분 모습을 탐구하고자 할 때,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시간배분을 동시에 살펴야하며 또한 이들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인 부부의 생활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의 시간사용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시간배분에 크게 변화를 주는 주요한 분류 기준으로 성별과 취업여부 혹은 취업유형-전일제·시간제 여부-을 취하고 있다(이기영 외, 1994; 이기영·이승미, 1994; 이기영 외, 1996; 이연숙 외, 2002). 즉 성별, 취업여부, 취업유형이 동일한 집단은 시간배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질 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욕구들이 존재하고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현 사회에서 이들 범주 내부의 편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사용을 성별과 취업에 의해서만 구분하는 것은 시간배분에 대한 다양한 선택 양상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위 단일 범주를 보다 비슷한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큰 편차가 한 범주 안으로 묻혀버리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적으로는 동질적이면서도 집단 외적으로는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보다 다양한 부부의 시간사용유형을 발견해내고, 부인과 남편 각각의 시간배분 모습 및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부부의 시간사용 현상이 보다 동질적 성격을 나타내는 유형들로 정돈되며 각 유형이 나타내는 독특한 특성에 근거하여 부부간의 다면적 시간사용 모습들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각 시간배분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시간사용유형을 제시하는데 선행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취업부인과 남편, 비취업부인과 남편의 평일과 휴일 시간사용은 어떻게 유형화 되는

가?

2) 취업부인과 남편, 비취업부인과 남편의 평일과 휴일 시간사용 유형별 시간배분 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사용 분류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행동을 분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하나하나의 개별행동에서 점차 그것을 묶는 더 큰 행위로 분류하는 방법¹⁾과 다른 하나는 전체적인 수준에서 대분류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하는 방법이다(김외숙 외, 2000).

시간을 측정하는데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간일지(time diary)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을 개인유지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시간일지에 보고되는 다양한 행동이 이러한 네 가지의 주요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Robinson & Godbey, 1999). 국내 가정학 분야에서도 시간사용을 이와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다(조희금, 1993; 이기영 외, 1994; 이기영·이승미, 1994; 이기영 외, 1996; 이연숙 외, 2002)²⁾. 시간일지법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네 영역의 시간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부부의 시간사용유형을 분석하였다. 각 시간사용범주의 세부 행동은 <표 1>과 같다.

<표 1> 시간사용 범주와 세부 항목

시간사용 범주	세부 항목
개인유지시간	잠자기 / 식사 / 휴식 / 의료 / 신변에 관한 일 (용변, 화장, 목욕, 출근 준비)
수입노동시간	근무 / 이동(통근·통학 및 직무관련 이동) / 부업, 집에서 하는 직장관련 일 / 학업
가사노동시간	
식생활	음식 만들기(식사준비) / 설거지
주생활	청소 / 정원 및 화초관리 / 자동차 손질 / 애완동물 돌보기
의생활	세탁 및 의류정리 / 의류관련 만들기 및 수선
가족원 돌보기	자녀 신체적 돌보기 / 자녀 학습지도 및 놀아주기 / 남편·부모관련 일
구매 및 가정관리	시장보기 / 가계부 정리 및 기타 관리(은행, 관공서 일보기 등)
여가시간	
비활동적 여가	TV 시청, 라디오 청취 / 독서(책, 신문, 잡지 등) / 가족과의 대화
활동적 여가	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 / 모임, 교제 / 운동, 취미, 오락, 문화활동, 각종 강습회 참여 등 / 종교활동

- 1) 12개국의 시간사용을 조사한 Szalai(1972) 등이 응답자의 시간일지로부터 96가지의 행동을 추출하여 이를 10개 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7개의 중분류 행동으로 축소하였다. Juster 외(1987)도 87가지의 행동을 10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외숙 외, 2000에서 재인용).
- 2) 이렇게 시간사용을 네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여도 각 범주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은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 종류나 가짓수가 달라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논의점에 대해서는 한지수(2004)의 박사학위논문 참고.

2. 시간사용 연구

1) 가정학에서의 시간사용 연구 동향

가정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정 생활영역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특히 가사노동시간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왔고(권혜연, 1996; 박주희, 1993; 윤복자, 1995; 이기영 외, 1997), 수입노동시간(조희금 외, 2000)이나 여가시간(이승미, 1996) 등을 구별하여 탐구하였다. 그러나 시간은 생활영역 전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며 변화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영역의 시간사용만을 연구하는 것은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간사용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 하루의 생활시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이기영 외, 1994; 이기영·이승미, 1994; 이기영 외, 1996; 이연숙 외, 2002).

시간사용 연구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시간사용구조에 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시간사용의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이후 시간사용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고(한경미, 1991, 1993) 그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연구(허경옥, 1997) 등이 수행되었으며,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간의 관계(박명희·백경임, 1997),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시간사용(이기영·이승미, 1994) 등을 고찰하고, 조기 출퇴근제의 영향(홍향숙·박수경, 1994),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주말시간사용구조(이종희, 2001) 등 사회제도의 변경에 따른 시대상을 반영한 주제가 다루어지면서 주제의 다양화 및 연구방법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국과의 비교연구(두경자, 1995; 이기영 외, 1996; 이연숙 외, 2002)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들은 그 대상이나 생활영역, 내용에 상관없이 주로 성별이나 부인의

취업여부에 의해서만 집단을 구분하여 시간사용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해 오다가 부인의 취업양상이 변화하면서 취업부인을 전일제와 시간제로 좀더 세분화 하여 파악하기도 하였다(이기영 외, 1996; 이연숙 외, 2002). 그러나 다양한 생활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별이나 부인의 취업여부 혹은 취업 형태만으로 연구 대상의 범주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들의 다면적 생활모습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 내부적으로 보다 동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 유형을 발견해내어 이들 유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상위 집단의 평균에 숨겨져 있는 하위 유형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2)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에 관한 선행 연구

시간사용 범주별 시간사용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수입노동을 시간배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수입노동시간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획득의 원천이 되며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해 고정되어있으므로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성역할분담이 뚜렷한 경우 부인에게는 가사노동시간도 어느 정도 강제적 의무가 부가된 시간이 된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는 수입노동시간이, 취업부인의 경우는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비취업부인의 경우는 가사노동시간이 시간배분에서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부인의 시간배분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 취업여성의 수입노동시간 증가는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만(한경미, 1991; 허경옥, 1997) 육아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허경옥, 1997), 이는 전체적으로 총 가사노동시간의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Robinson &

Godbey, 1999)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여가 시간은 평일의 경우 수입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허경옥, 1997)와 영향을 받지 않는다(한경미, 1991)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평일 수입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여가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에 선택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휴일이 되면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경향을 볼 때(한경미, 1991) 여가시간도 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남편의 경우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여가시간을 의미있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허경옥, 1997), 수입노동시간이 긴 평일의 여가시간은 매우 짧은데 비해, 수입노동시간이 거의 없는 휴일에는 여가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이기영 외, 1994; 이기영 외, 1996; 이연숙 외, 2002; 이현아·이기영, 1994). 한편 남편은 평일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을 의미있게 줄이고 있었다(허경옥, 1997). 그러나 평일의 적은 가사노동시간은 휴일이라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외, 1994; 이기영 외, 1996; 이연숙 외, 2002; 이현아·이기영, 1994). 이를 종합해보면 남편은 수입노동시간이 긴 평일에는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과 여가시간을 모두 감소시키지만 수입노동시간이 거의 없는 휴일에는 여가시간을 늘리고 있으며, 수입노동시간과는 상관없이 가사노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에 대한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지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도 길어진다는 연구(Maret & Finlay, 1984)와 함께 이와는 반대로 부인의 취업상태가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었다(Coverman & Sheley, 1986). 또한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육아시간 제외)을 증가시켰지만 육아시간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허경옥, 1997). 남편의 시간사용이 부인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허경옥, 1997).

이러한 결과는 남편은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가사노동이나 육아시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등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부부의 시간사용 상호작용에 있어서 남편의 시간이 부인보다 선택적이며 부인은 남편의 시간사용에 관계없이 고정된 패턴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미 시간사용 공동 연구(이연숙 외, 2002)」를 위해 수집한 자료 중 한국측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를 위해 1회의 예비조사와 2회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0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총 30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계절에 따른 가족의 시간사용 변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봄~여름 기간인 2000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에, 2차 조사는 가을~겨울 기간인 2000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4인 가정으로, 부인과 남편, 고등학교 이하인 자녀 2

인으로 구성된 기타 가족원이 없는 가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자녀 수가 2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³⁾이고, 기타 가족원은 가족의 시간사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며, 성인 자녀와 학령기 자녀는 부모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제한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서울을 강북, 강서, 강동, 강남의 4대 광역권으로 나누어 인구비례로 선정하였으며, 취업부인부부와 비취업부인부부의 수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슈퍼바이저가 10명의 면접원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면접원이 대상 가정을 총 2회 방문하여 질문지와 시간일지표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총 400부를 배부하여 380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부실한 것과 답변 내용이 일관적이지 못한 것, 군집분석에서 군소군집으로 분류된 것을 제외하고, 311 부부의 질문지와 시간일지표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의 구성

시간일지표는 24시간을 15분 단위로 구분되었으며, 평일 중 하루와 휴일 중 하루 총 이틀 동안 남편과 부인 각자가 자신의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총 30개로 분류된 생활행동을 중심으로 시간사용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한번에 여러 활동을 중복해서 한 경우 중점적으로 한 활동만 기입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시간압박, 생활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구분하였고 각자가 자신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부인용의 경우 취업부인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취업부인용과 비취업부

인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취업부인에게는 취업관련 설문이 추가되고 취업관련 내용을 제외한 여타 설문내용은 비취업부인과 동일하다.

3. 분석방법

우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은 SAS 8.2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사용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작업은 과정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성된 분류와 함께 분류의 과정을 동시에 언급해야한다(Bailey, 1994). 분류작업을 위해 이용한 군집분석은 그 절차와 해(solution)를 선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통계 기법이기 때문에 군집분석 전문가들은 군집방법의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Everitt et al., 2001; Hair & Blac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Hair와 Black(2002)이 제시한 6단계 군집 절차를 중심으로 하고 Milligan의 단계를 수정 정리한 Everitt 외(2001)의 단계를 보완하여 총 6단계로 군집분석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군집의 기준이 되는 군집 변수를 선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특이값(outlier) 점검과 제거 여부, 자료의 표준화를 고려한다(Hair & Black, 2002). 세 번째 단계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평가한다.

3) 2003년 현재 유배우 부인당 평균 출생아 수는 1.8명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네 번째 단계부터 직접적인 분류 작업이 시작되어 군집을 이끌어 내고 전체적인 적절성을 평가하게 된다. 우선 군집 알고리즘(algorithm)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군집수를 결정하게 된다. 군집 알고리즘 중 과거에는 계층적(hierarchical)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는데(Hair & Black, 2002), 자료가 계층에 근거하지 않고 군집을 몇 개로 나누어야 할 때는 비계층적 방법이 보다 적절한 경우가 많아(Everitt et al., 2001) 오늘날 점점 많이 응용되고 있다. 한편 각각의 장점을 얻기 위해 계층적 방법과 비계층적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Hair & Black, 2002).

알고리즘을 선택한 다음에는 군집수를 결정해야 한다. 계층적 방법의 경우 pseudo F(PSF), pseudo t2(PST2), 그리고 semi partial R square (SPRQ) 등의 통계량에 근거하여 적절한 군집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비계층적 방법 중 널리 이용되는 k-means 군집화는 군집수를 연구자가 미리 지정하게 되며 군집수를 증감시키면서 의미있는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고를 수 있다(허명희, 1999; SAS Institute Inc., 1999). 한편 군집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계적인 객관적 규칙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다룰 수 있는 범위의 수여야 한다는 실질적인 측면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311)

개 인 관 련			가 정 관 련		
변 수	부인	남편	변 수	M (SD)	
	M (SD)			n (%)	
성역할태도	2.77(.41)	2.46(.43)	월평균소득(만 원)	265.2(85.0)	
연령 (만 세)	36.4(5.10)	39.4(5.40)	자녀연령(만 세)	첫째 10.5(4.6)	둘째 7.8(4.5)
	n (%)			n (%)	
교육수준			총자산		
고졸 이하	239(76.9)	141(45.4)	1억 미만	153(49.2)	
전문대졸	11(3.5)	16(5.1)	1억 이상~2억 미만	111(35.7)	
대졸	61(19.6)	149(47.9)	2억 이상~3억 미만	37(11.9)	
대학원졸 이상	0(0.0)	5(1.6)	3억 이상	10(3.2)	
취업여부			주택소유		
취업	96(30.9)	311(100.0)	자가	182(58.7)	
비취업	215(69.1)	0(0.0)	비자가	126(41.3)	
직업			주택명의(n=130)		
전업주부	215(69.1)	0(0.0)	남편	174(96.1)	
판매·서비스·자영	60(19.3) ¹⁾ (62.5) ²⁾	126(40.5)	부인	2(1.1)	
생산·단순노무	12(3.9)(12.5)	28(12.2)	부부공동	2(1.1)	
사무	24(7.7)(25.0)	132(42.4)	시택식구	3(1.7)	
전문·기술·행정관리	0(0.0)	15(4.8)			

1) 부인 전체(n=311) 중에서의 비율

2) 취업부인(n=96) 중에서의 비율

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이론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도 군집 수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Hair & Black, 2002).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군집의 특성을 설명하는 이름을 붙이며 군집을 해석한다(Hair & Black, 2002).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군집을 타당화 하고 군집 특성을 기술하게 된다.

한편 군집분석을 수행한 연구들에서, 군집을 형성하는데 사용된 변수로 군집 간 유의성 검증(예를 들어, ANOVA, MANOVA, 판별 분석 등)을 하여 군집 해를 평가하는 방법이 자주 이용되었다. 그러나 군집분석은 군집에 사용된 변수들에 대해 군집 간 차이를 최대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의성 검증의 가정⁴⁾은 상당히 왜곡된다(Everitt et al., 2001). 이에 대해 Aldenderfer와 Blashfield(1984)은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at best) 쓸모없으며 최악의 경우(at worst) 잘못된 결과로 이끈다”고 하였다.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에 대한 유형화 과정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에 대한 유형화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평일과 휴일 시간사용을 유형화하였다⁵⁾. 유형화를 위해 개인유지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을 군집 변수로 삼았다.

군집 알고리즘 중 우선 계층적 방법인 Ward 방법으로 군집분석하여 SPRQ, PSF, PST2 등의 수치를 검토하면서 적절한 군집의 개수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 비계층적 방법인 k-means 방법을 이용하여 3~6개의 군집으로 구분해 보았고, 각각에 대해 각 군집의 빈도수와 함께 군집분석 결과가 군집의 특성을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가를 고려하였다. 두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군집 개수를 확정하였고 그 후 k-means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유형을 확정하였다. 부인과 남편의 평일과 휴일 각 집단은 3~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 때 각 집단 내에서, 네 가지 시간범주 중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배분되는 범주를 근거로 유형의 명칭을 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유형은 개인유지중시형, 수입노동중시형, 가사노동중시형, 여가중시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

2.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유형화 결과는 <표 3>~<표 6>과 같으며, <표 7>에서 각 유형의 %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업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

취업부인부부의 평일 시간사용유형을 살펴보면(<표 3>, <표 7> 참고), 부인은 가사노동중시형이 64.6%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수입노동중시형 20.8%, 개인유지중시형 14.6%의 순이었다. 남편은 개인유지중시형이 38.5%로 가장

4) 개체가 무작위로 군집에 할당되었다는 영가설에 반하는 군집을 검증하는 방법

5) 취업부인, 취업부인남편, 비취업부인, 비취업부인남편의 평일과 휴일 시간사용을 각각 유형화하였으며 따라서 크게 8집단에 대한 군집분석이 수행되었다.

많았고 다음 여가중시형 35.4%, 수입노동중시형 2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부인 부부의 휴일 시간사용유형 결과 (<표 4>, <표 7> 참고), 부인은 개인유지중시형이 44.8%로 가장 많았고 가사노동중시형도 41.7%로 많은 편이었으며 여가중시형은 13.5%로 가장 적었다. 수입노동중시형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군집분석과정에서 수입노동시간이 긴 취업부인의 사례수가 적어 제외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개인유지중시형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여가중시형으로 27.1%였

고, 가사노동중시형은 11.5%였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노동시간이 긴 유형이 나타나 이는 8.3%로 가장 적은 비율이었으며 개인유지나 여가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남편이 대부분이었다.

2) 비취업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

비취업부인 부부의 평일 시간사용유형을 살펴보면(<표 5>, <표 7> 참고), 부인은 가사노동중시형이 가장 많은 40.5%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여가중시형 36.3%, 개인유지중시형 23.3%

<표 3> 취업부인과 남편의 평일 시간사용 유형

시간:분(%)

시간사용유형 시간사용분류	부인				남편			
	전체(n=96)	군집1(n=14) 개인유지 중시형	군집2(n=20) 수입노동 중시형	군집3(n=62) 가사노동 중시형	전체(n=96)	군집1(n=37) 개인유지 중시형	군집2(n=25) 수입노동 중시형	군집3(n=34) 여가 중시형
수면	7:31	9:09	7:16	7:14	7:53	8:49	7:29	7:10
식사	1:55	2:27	1:52	1:48	1:55	2:00	1:54	1:51
기타	0:54	1:19	0:39	0:53	0:58	1:14	0:47	0:49
개인유지	10:19(43.0)	12:55(53.8)	9:47(40.8)	9:54(41.3)	10:47(44.9)	12:03(50.2)	10:11(42.4)	9:50(41.0)
노동	8:06	8:11	9:50	7:31	9:37	9:02	11:07	9:08
이동	0:55	0:47	1:09	0:53	1:16	1:07	1:21	1:22
기타	0:03	0:00	0:06	0:02	0:05	0:04	0:11	0:03
수입노동(①)	9:04(37.8)	8:58(37.4)	11:05(46.2)	8:26(35.1)	10:58(45.7)	10:13(42.6)	12:38(52.6)	10:33(44.0)
식생활	1:34	0:38	1:08	1:54	0:02	0:04	0:00	0:02
주생활	0:24	0:11	0:18	0:30	0:01	0:00	0:00	0:02
의생활	0:20	0:11	0:11	0:24	0:01	0:00	0:02	0:00
구매및가정관리	0:25	0:14	0:09	0:33	0:01	0:01	0:00	0:02
자녀	0:33	0:25	0:11	0:42	0:14	0:11	0:10	0:18
기타가족원	0:02	0:00	0:00	0:02	0:00	0:00	0:00	0:01
가족원돌보기	0:35	0:25	0:11	0:45	0:14	0:11	0:10	0:19
가사노동(②)	3:17(13.7)	1:38(6.8)	1:57(8.1)	4:06(17.1)	0:18(1.3)	0:16(1.1)	0:13(0.9)	0:25(1.7)
총노동(①+②)	12:21(51.5)	10:36(44.2)	12:42(54.3)	12:32(52.2)	11:16(46.9)	10:29(43.7)	12:51(53.5)	10:58(45.7)
TV·라디오	1:08	0:30	1:00	1:19	1:32	1:23	0:42	2:19
기타	0:05	0:00	0:07	0:05	0:11	0:02	0:12	0:20
비활동적여가	1:13	0:30	1:07	1:24	1:43	1:25	0:53	2:38
활동적여가	0:07	0:00	0:05	0:10	0:14	0:03	0:05	0:34
여가	1:20(5.6)	0:30(2.1)	1:11(4.9)	1:34(6.5)	1:57(8.1)	1:28(6.1)	0:58(4.0)	3:12(13.3)

의 순이었다. 남편은 개인유지증시형이 48.4%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이 여가증시형 28.8%, 수입노동증시형 22.8%의 순이었다.

비취업부인 부부의 휴일 시간사용유형 결과(<표 6>, <표 7> 참고) 부인은 개인유지증

시형이 40.0%로 가장 많았고, 가사노동증시형도 이와 비슷한 36.3%였으며 여가증시형이 23.7%로 나타났다. 남편은 가사노동증시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여가증시형 30.7%, 개인유지증시형 20.5%를 차지하였다. 휴일임

<표 4> 취업부인과 남편의 휴일 시간사용 유형

시간:분(%)

시간사용유형 시간사용분류	부인				남편				
	전체 (n=96)	군집1 (n=43) 개인유지 증시형	군집2 (n=40) 가사노동 증시형	군집3 (n=13) 여가 증시형	전체 (n=96)	군집1 (n=51) 개인유지 증시형	군집2 (n=8) 수입노동 증시형	군집3 (n=11) 가사노동 증시형	군집4 (n=26) 여가 증시형
수면	9:14	9:23	9:20	8:23	9:57	10:46	9:24	9:08	8:50
식사	1:51	1:53	1:55	1:30	1:46	1:58	1:39	1:52	1:21
기타	1:04	1:20	0:53	0:44	1:11	1:25	1:09	0:57	0:49
개인유지	12:08(50.6)	12:36(52.5)	12:08(50.6)	10:37(44.2)	12:53(53.7)	14:09(59.0)	12:13(50.9)	11:57(49.8)	11:00(45.8)
노동	0:03	0:00	0:07	0:00	0:43	0:00	8:32	0:00	0:00
이동	0:00	0:00	0:00	0:00	0:05	0:02	0:47	0:00	0:00
기타	0:05	0:08	0:03	0:00	0:03	0:00	0:36	0:00	0:00
수입노동(①)	0:08(6)	0:08(6)	0:10(7)	0:00(0.0)	0:50(3.5)	0:02(1)	9:54(41.3)	0:00(0.0)	0:00(0.0)
식생활	2:26	2:18	2:52	1:30	0:01	0:01	0:00	0:07	0:01
주생활	0:56	0:53	1:15	0:12	0:13	0:11	0:00	0:44	0:06
의생활	0:46	0:45	0:57	0:20	0:00	0:00	0:00	0:00	0:00
구매및가정관리	0:56	0:42	1:26	0:14	0:09	0:00	0:00	1:11	0:03
자녀	0:46	0:12	1:36	0:09	0:45	0:45	0:00	2:20	0:01
기타가족원	0:07	0:03	0:12	0:05	0:04	0:00	0:13	0:19	0:01
가족원돌보기	0:54	0:15	1:48	0:14	0:49	0:36	0:28	3:50	0:05
가사노동(②)	5:58(24.9)	4:53(20.3)	8:17(34.5)	2:29(10.3)	1:12(5.0)	0:47(3.3)	0:28(1.9)	5:52(24.4)	0:14(1.0)
총노동(①+②)	6:06(25.4)	5:01(20.9)	8:27(35.2)	2:29(10.3)	2:02(8.5)	0:49(3.4)	10:22(43.2)	5:52(2.4)	0:14(1.0)
TV·라디오	3:28	4:19	2:30	3:32	5:17	6:23	1:00	3:50	5:04
기타	0:17	0:19	0:18	0:05	0:45	0:23	0:24	0:59	0:23
비활동적여가	3:55	4:50	2:52	4:03	6:03	7:05	1:24	4:53	5:57
활동적여가	1:50	1:32	0:32	6:51	3:02	1:57	0:00	1:18	6:49
여가	5:45(24.0)	6:22(26.5)	3:24(14.2)	10:54(45.4)	9:05(37.8)	9:02(37.6)	1:24(5.8)	6:11(25.8)	12:46(53.2)

에도 불구하고 수입노동시간이 긴 유형이 나타났으나 10.7%로 가장 적었으며 이는 취업부인 남편과의 공통점이었다.

3.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별 시간배분 특성

1) 개인유지중시형

개인유지중시형은 평일과 휴일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형이다. 평일 취업부부

의 개인유지중시형을 비교해 보면 부인의 개인유지시간은 12시간 55분이었고 남편은 이보다 적은 12시간 3분이었다. 그러나 휴일이 되면 부인은 평일보다 약간 줄어들어 12시간 36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남편은 평일보다 많이 길어진 14시간 9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취업부인 부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평일 비취업부인의 개인유지시간은 13시간 53분이고 남편은 이보다 적은 11시간 26분인데, 휴일이 되면 부인은 오히려 평일보다 적

<표 5> 비취업부인과 남편의 평일 시간사용 유형

시간:분(%)

시간사용유형 시간사용분류	부인				남편			
	전체 (n=215)	군집1 (n=50) 개인유지 중시형	군집2 (n=87) 가사노동 중시형	군집3 (n=78) 여가 중시형	전체 (n=215)	군집1 (n=104) 개인유지 중시형	군집2 (n=49) 수입노동 중시형	군집3 (n=62) 여가 중시형
수면	7:53	8:53	7:37	7:31	7:47	8:22	7:14	7:14
식사	1:54	2:12	1:55	1:41	2:01	2:09	1:59	1:48
기타	1:15	2:49	0:41	0:52	0:51	0:55	0:45	0:47
개인유지	11:01(45.9)	13:53(57.8)	10:14(42.6)	10:04(41.9)	10:38(44.3)	11:26(47.6)	9:58(41.5)	9:49(40.9)
노동	0:00	0:00	0:00	0:00	9:46	9:19	11:43	8:58
이동	0:01	0:02	0:00	0:01	1:17	1:14	1:19	1:20
기타	0:02	0:00	0:01	0:04	0:05	0:01	0:17	0:02
수입노동(①)	0:03(2)	0:02(1)	0:02(1)	0:05(3)	11:08(46.4)	10:34(44.0)	13:19(55.5)	10:20(43.1)
식생활	2:33	2:02	2:54	2:30	0:00	0:01	0:00	0:00
주생활	1:11	1:08	1:25	0:57	0:00	0:01	0:01	0:00
의생활	0:50	0:50	0:54	0:46	0:00	0:00	0:00	0:00
구매및가정관리	1:27	1:18	1:40	1:19	0:00	0:00	0:02	0:00
자녀	1:35	0:53	2:43	0:44	0:05	0:07	0:01	0:04
기타가족원	0:11	0:11	0:17	0:04	0:00	0:00	0:00	0:01
가족원돌보기	1:45	1:04	3:00	0:49	0:05	0:07	0:01	0:05
가사노동(②)	7:47(32.4)	6:21(26.5)	9:53(41.2)	6:21(26.5)	0:06(4)	0:08(6)	0:03(2)	0:05(3)
총노동(①+②)	7:50(32.6)	6:23(26.6)	9:55(41.3)	6:26(26.8)	11:14(46.8)	10:42(44.6)	13:22(55.7)	10:25(43.4)
TV·라디오	3:24	2:49	3:01	4:13	1:29	1:33	0:27	2:11
기타	0:24	0:14	0:25	0:31	0:15	0:11	0:05	0:30
비활동적여가	3:49	3:03	3:26	4:44	1:44	1:44	0:32	2:40
활동적여가	1:20	0:41	0:26	2:46	0:24	0:08	0:07	1:05
여가	5:09(21.5)	3:44(15.6)	3:51(16.0)	7:30(31.3)	2:08(8.9)	1:52(7.8)	0:39(2.7)	3:45(15.6)

어진 12시간 40분이 되고 남편은 15시간 11분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간배분패턴의 변화에는 부인과 남편 사이의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일 가사노동시간이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모두 5시간 전후였지만, 취업부인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은 1시간 전후로 부인보다 4시간 정도가 짧아 이 시간을 개인유지시간이나 여가시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2) 수입노동중시형

수입노동중시형은 평일 취업부인, 취업부인남편, 비취업부인남편의 세 집단에서 도출되었다. 취업부인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 수입노동중시형은 그 시간배분패턴이 비슷하여 수입노동시간이 하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개인유지시간은 10시간 내외이고 가사노동시간은 거의 없으며 여가시간은 1시간이 안되었다.

수입노동시간을 전체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평일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부인보다 2시

<표 6> 비취업부인과 남편의 휴일 시간사용유형

시간:분(%)

시간사용유형 시간사용분류	부인				남편				
	전체 (n=215)	군집1 (n=86) 개인유지 중시형	군집2 (n=78) 가사노동 중시형	군집3 (n=51) 여가 중시형	전체 (n=215)	군집1 (n=44) 개인유지 중시형	군집2 (n=23) 수입노동 중시형	군집3 (n=82) 가사노동 중시형	군집4 (n=66) 여가 중시형
수면	8:53	9:13	8:35	8:48	9:42	11:27	8:28	9:52	8:45
식사	1:52	2:08	1:58	1:16	1:51	2:20	2:07	1:52	1:26
기타	0:59	1:19	0:44	0:46	1:01	1:24	0:54	1:05	0:44
개인유지	11:44(48.9)	12:40(52.8)	11:18(47.1)	10:51(45.2)	12:35(52.4)	15:11(63.3)	11:29(47.8)	12:49(53.4)	10:56(45.6)
노동	0:00	0:00	0:00	0:00	1:01	0:12	8:53	0:02	0:01
이동	0:00	0:00	0:00	0:00	0:06	0:00	0:55	0:00	0:01
기타	0:01	0:02	0:00	0:00	0:03	0:03	0:13	0:02	0:00
수입노동(①)	0:01(1)	0:02(1)	0:00(0)	0:00(0)	1:10(4.9)	0:15(1.0)	10:02(41.8)	0:05(.3)	0:02(1)
식생활	2:13	2:17	2:51	1:09	0:01	0:00	0:03	0:01	0:00
주생활	0:52	0:55	1:05	0:29	0:09	0:06	0:03	0:18	0:03
의생활	0:40	0:35	1:03	0:14	0:00	0:00	0:00	0:01	0:00
구매및가정관리	0:38	0:38	0:57	0:09	0:05	0:05	0:05	0:08	0:01
자녀	0:58	0:40	1:50	0:07	0:34	1:00	0:25	0:47	0:03
기타가족원	0:18	0:06	0:39	0:07	0:09	0:00	0:00	0:22	0:00
가족원돌보기	1:16	0:47	2:28	0:14	0:42	1:00	0:25	1:10	0:03
가사노동(②)	5:39(23.5)	5:12(21.7)	8:24(35.0)	2:14(9.3)	0:57(4.0)	1:11(4.9)	0:35(2.4)	1:37(6.7)	0:07(5)
총노동(①+②)	5:40(23.6)	5:14(21.8)	8:24(35.0)	2:14(9.3)	2:07(8.8)	1:26(6.0)	10:37(44.2)	1:42(7.1)	0:09(6)
TV·라디오	3:49	4:18	3:33	3:23	4:57	5:21	1:31	5:20	5:26
기타	0:21	0:32	0:14	0:12	0:45	0:52	0:07	0:59	0:36
비활동적여가	4:10	4:50	3:48	3:35	5:43	6:14	1:38	6:19	6:02
활동적여가	2:25	1:16	0:30	7:19	3:35	1:10	0:16	3:10	6:53
여가	6:35(27.4)	6:06(25.4)	4:18(17.9)	10:54(45.4)	9:18(38.8)	7:24(30.8)	1:54(7.9)	9:29(39.5)	12:25(53.8)

간 정도 길었는데 유형화 결과와 함께 살펴보면 이는 '수입노동중시형'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유지중시형과 여가중시형의 수입노동시간은 10시간 30분 전후이면서 9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편 수입노동중시형은 총 수입노동시간이 하루의 절반 이상이며 근무시간도 11시간을 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문제 삼고 있는 우리나라 남편의 평일 수입노동과중 현상이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응답자 남편의 25%(취업부인남편 26.0%, 비취업부인남편 22.8%) 내외로 나타났다.

3) 가사노동중시형

평일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모두 가사노동중시형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부인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은 공통적으로 가사노동중시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의 전체 평균시간이 짧으며 또한 가사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사례가 적어 하나의 유형을 형성하는데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일에 부인은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가사노동의 주 책임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취업부인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의 경우 평일에 유형화되지 않은 가사노동중시형이 휴일에 공통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평일에 비해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남편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특히 자녀돌보기 시간이 다른 남편들보다 많았으며 그 외에 구매, 주생활 등 전형적인 남성중심적 항목에 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는 부인의 경우 모든 하위 항목에 시간을 배분하고 특히 식생활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는 다른 시간배분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취업부인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의 휴일 가사노동중시형은 그 시간배분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취업부인남편의 가사노동중시형은 11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사노동시간이 6시간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취업부인남편의 경우 가사노동에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하는 집단이 전체의 38.1%로 그 비율이 높았지만 이들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 37분으로 취업부인남편에 비해 현저히 짧은 것을

<표 7>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 분포

		n(%)			
		개인유지중시형	수입노동중시형	가사노동중시형	여가중시형
취업부인과 남편 (n=96)					
평일	취업부인	14(14.6)	20(20.8)	62(64.6)	-
	취업부인남편	37(38.5)	25(26.0)	-	34(35.4)
휴일	취업부인	43(44.8)	-	40(41.7)	13(13.5)
	취업부인남편	51(53.1)	8(8.3)	11(11.5)	26(27.1)
비취업부인과 남편 (n=215)					
평일	비취업부인	50(23.3)	-	87(40.5)	78(36.3)
	비취업부인남편	104(48.4)	49(22.8)	-	62(28.8)
휴일	비취업부인	86(40.0)	-	78(36.3)	51(23.7)
	비취업부인남편	44(20.5)	23(10.7)	82(38.1)	66(30.7)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취업부인남편 가사노동 중시형은 취업부인남편만큼 가사노동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여가중시형

여가중시형은 평일 취업부인만 제외하면 모든 집단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도출되고 있다. 휴일에는 모든 집단에서 여가중시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일의 여가중시형보다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취업부인과 비취업부인, 취업부인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이 같은 패턴을 보여 부인의 취업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부인과 남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 개인유지시간은 11시간 정도로 부인집단과 비슷한데, 가사노동시간은 20분 미만으로 부인보다 2시간 정도 짧고, 여가시간은 12시간 25분~46분 사이로 부인보다 1시간 30분~2시간 정도 길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은 모두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분하고 그 외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을 확보한 후 나머지 시간을 여가시간에 할애하지만, 남편은 가사노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여가시간임을 보여준다. 여가시간 중 부인은 모두 TV시청시간이 3시간 30분 대이고 남편은 5시간~5시간 30분 정도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차이가 나며 그 밖에 활동적 여가시간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사노동에서의 부인과 남편의 차이가 TV시청시간에 의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시간사용유형에 근거하여 부부의 생활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부부 311쌍이 분석에 포

함되었고 이들의 시간사용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시간사용을 성별이나 취업여부에 의해 구분하고 이를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세부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유형별로 독특한 시간배분구조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에 의한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시간사용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취업부인남편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은 전체적으로 취업부인보다 길었는데, 유형화 결과 이는 수입노동중시형의 수입노동시간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나머지 유형의 남편들은 평일 취업부인의 수입노동중시형보다 적은 수입노동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어느 정도의 노동력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취업부인남편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부인남편과 비취업부인남편의 휴일 가사노동시간은 1시간 내외로 비슷하였다. 그러나 유형화 결과 취업부인남편 중 가사노동중시형으로 분류된 남편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이 유형의 가사노동시간이 전체 평균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비취업부인남편의 경우는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량이 적었다. 따라서 취업부인남편의 휴일 가사노동시간은 비취업부인남편과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적 관점에서는 적은 시간이지만 비취업부인남편과는 달리 그 안에는 가사노동에 현실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대로 본 연구에서도 가사노동에서의 부부간 불평등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각 유형별 시간배분방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가사노동중시형의 경우 부인집단에서는 평일과 휴일에 모두 이 유형이 나타났으나 남편집단에서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휴일이 되면 시간량은 부인보다 훨씬 적지만 남편 집단에서도 가사노동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남편의 경우 평일에는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직장일에 보다 주력하다가, 휴일에는 대부분 이러한 수입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나므로 가사노동에 참여할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가능한 최소한의 정도만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유지중시형의 경우 부인집단의 개인유지시간은 평일에 비해 휴일에 약간 줄어들면서 휴일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취업부인의 경우 휴일에 가사노동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집단은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유지시간이 평일보다 휴일에 훨씬 길어지고 있으며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에 비해 훨씬 적었다. 이는 부인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남편은 개인유지시간에 배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가중시형의 경우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 부인은 모두 가사노동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분하고 그 외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을 확보한 후 나머지 시간을 여가시간에 할애하지만, 남편은 가사노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필수적인 개인유지시간을 제외하면 모두 여가시간에 할애하고 있다. 특히 여가시간 중 TV시청시간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긴 만큼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 부인보다 짧은 현상이 나타나 가사노동에서의 부인과 남편의 차이가 TV시청시간에 의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인의 취업여부에 상관없이 가사노동의 주 담당자는 부인이며 우리나라 사회에 아직도 성역할분리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은 기혼여성의 취업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은 노동부담으로 인하여 원하는 수입노동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자아실현이나 가정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수입노동을 지속하기 위해 현재의 저출산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성이 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을 직업환경 측면에서뿐 아니라 가정환경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며, 특히 남편의 가사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이하인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성인 자녀와 학령기 자녀의 존재가 부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대상의 제한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학령기가 아닌 자녀를 가진 부부, 자녀가 한 명이거나 자녀가 없는 부부 등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해본다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부부의 시간사용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집분석 과정에서, 취업부인 중 휴일 수입노동시간이 많은 경우도 하나의 유형으로 도출되었지만 사례수가 너무 적어 이를 제거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남편 유형과의 대응되는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취업부인부부의 사례수를 좀더 늘려 모든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명확한 연구가 될 것이다. 나아

가 취업하지 않은 남편들도 포함한다면 부인과 남편 사이의 시간사용유형에 대한 비교와 부부간 상호작용이 보다 깊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외숙 · 조희금 · 두경자(2000). 시간의 사용과 관리. 교문사.
- 3) 두경자(1995). 기혼여성(가사전담 전일제 근무 취업주부와 완전자력 전업주부)의 시간사용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 사회과학연구(상명대학교), 7, 297-320.
- 4)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5) 박명희 · 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 -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173-189.
- 6) 박주희(1993). 취업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성별분리 정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이기영 · 김외숙 · 서창원 · 이승미(1994). 도시 근로자가정 부부의 시간사용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8) 이기영 · 이승미(199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시간사용 구조에 대한가정학회지, 32(3), 11-26.
- 9)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 · 조희금(1996). 한·일 양국간 도시부부의 시간사용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10)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 · 조희금(1997). 한·일 양국 근로자부부의 가사노동분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97-108.
- 11) 이기영 · 조영희 · 송혜림 · 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12) 이승미(1996).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63-75.
- 13) 이연숙 · 이기영 · 김외숙 · 조희금 · 주인숙 · Zick, C. D. · Lee, Y. G.(2002). 한·미 양국간 가족의 시간사용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139-156.
- 14)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15) 이현아 · 이기영(1994). 남편의 시간사용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장시간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45-160.
- 16) 조희금(1993). 생산직 기혼 여성의 생활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1(3), 101-112.
- 17) _____(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시간사용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1-14.
- 18) _____(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2), 143-156.
- 19) 조희금 · 이기영 · 이연숙 · 김외숙(2000). 한·일 양국 전일제 맞벌이 부부의 수입노동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14.
- 20)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21) _____(1993). 시간관리행동과 관련 변수 :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83-95.
- 22) _____(1995). 기혼취업 여성의 가정, 직업, 여가생활만족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47-57.
- 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 24)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12(2), 90-105.
- 25) _____(1997). 부인과 남편의 시간배분구조 분석 : 가정생산모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319-337.
- 26) 홍향숙·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50-59.
- 27) Aldenderfer, M. S. & Blashfield, R. K. (1984). *Cluster Analysis*. Sage University Pater series on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series 07-001. Newbury Park, CA: Sage.
- 28) Bailey, K. D.(1994). *Typologies and Taxonomies: An Introduction to Classification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 29) Coverman, S. & Sheley, J. 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30) Evenson, R. E.(1983). The allocation of women's tim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Behavior Science Research*, 17(3), 196-215.
- 31) Everitt, B. S., Landau, S. & Leese, M.(2001). *Cluster Analysis*. 4th ed. Arnold: London.
- 32) Gleick, J.(1999). *Faster: The Acceleration of Just about Everything*. New York: Pantheon Books.
- 33) Greenhaus, J. H. & Beutell, N.J.(1985). Source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76-88.
- 34) Hair J. F. Jr. & Black W. C.(2002). Laurence G. Grimm & Paul R. Yarnold (Ed.).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35) Harris, L.(1999). Families and work. In Sussman, M. Steinmetz, S. K. & Peterson, G. W.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 36) Hochschild, A. R.(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rk: Viking
- 37) Maret, E. & Finlay, B (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38) Robinson, J. P. & Godbey, G.(1999). *Time for the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2nd ed. Penn State Press.
- 39) SAS Institute Inc.(1999). *SAS/STAT User's Guide Version 8*.
- 40) Schor, J. B. (1992).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 41) Shields, M.(1999). Long working hours and health. *Health Reports*, 11, 1-17.
- 42) Simon, R.(1995). Gender, multiple roles, role meaning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182-194.